



## 매운(辛) 소(丑)의 해 새해를 신축(新築)하자!



**박재희**  
인문경영원 대표

- 성균관대 철학박사
- (전)포스코 석좌교수
- (전)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흥천 Salon In Moon 대표

**신**축(辛丑)년 소띠 해(日)가 떴다.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인간에게 이로운 소의 이미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소를 좋아하는 이유다. 살아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힘을 아낌없이 보태 주다가, 죽어서는 육신 공양을 통해 인간의 생명에 온기를 불어넣는 소야말로 동물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친구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소를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아닌 식구로 생각하고, 내가 굶을지언정 소는 굶기지 않겠다는 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보여왔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면 나를 깨웠던 소죽 찌는 냄새의 기억, 콩깍지, 볶짚, 자식보다 먼저 먹여야 했던 새벽밥, 일찍 일어나 가마솥에 소 죽을 찌는 부모님의 모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측은지심(惻隱之心)

맹자는 소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위(魏)나라 양혜왕이 어느 날 왕의 용

상에 앉아 아무 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았다. 왕은 두려워 떠는 소를 보며 측은한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신하에게 소를 놔주고 양으로 대신 하라고 명하였다. 아무 죄 없이 떨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차마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양으로 왜 바꾸었을까? 양에게는 측은한 마음이 안 들었던 것일까? 소의 불쌍한 모습은 보았고, 양의 불쌍한 모습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맹자는 왕에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남의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한 측은지심의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의 불쌍함을 보고 양으로 바꾼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저 불쌍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무런 죄 없이 고통과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확장하소서! 그래야 비로소 백성들의 부모 된 자라 할 것입니다. 말로는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부모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맹자는 말한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그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너의 착한 마음이 세상을 평안케 하리라!

#### 소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포정해우(庖丁解牛)

장자는 소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보았다. 소 잡는 명인 포정이 소를 해체하는 광경을 묘사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포정(庖丁)은 당시 가장 소를 잘 해체하는 전문가였다. 그가 소를 해체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신기에 가까운 소 잡는 기술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지였다. 포정이 소를 잠시 노려보다가 곧 칼을 빼 들고 소를 잡을 때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었다. 칼이 지나가는 모습은 눈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포정의 얼굴에서는 장엄함마저 느껴졌다. 해체를 마치고 그가 휘두르던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순간, 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위별로 땅에 떨어졌다. 어느 부위 하나 엉키지 않고 깔끔하게 해체된 모습은 차라리 예술에 가까웠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귀족, 문혜군이 포정에게 물었다. “너의 소를 잡는 기술의 요체는 무엇인가?” 포정은 자신이 소를 해체하는 것은 기술(技)이 아니라 도(道)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소를 잡을 때는 소를 보지 않습니다. 소의 근육과 뼈와 힘줄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虛)을 봅니다. 하수들은 뼈를 자르고 살을 뺍니다. 그러니 칼은 늘 무디게 됩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칼이 지나가는 길(道)을 봅니다. 그 길을 향해 칼이 지나가면 그 칼은 어떤 저항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몇 년이 지나 칼을 갈지 않아도 날카로운 칼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

니다. 이것이 제가 소를 해체하는 도(道)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완성 뒤에서는 소멸이 기다리고, 성공은 파멸을 부른다. 똑똑하면 질투를 만나고, 부귀는 미움을 감수해야 한다. 포정이 칼은 칼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의 도(道)를 배운 사람들은 깔끔하게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결을 알기에 무리하지 않고, 틈을 알기에 어긋나지 않고, 비움으로 살기에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인다. 장자는 포정의 칼끝에서 지혜로운 인생의 결을 보았다. 양생(養生)의 도는 비움(虛), 길(道)에 있음을 장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생마사(牛生馬死)

여름철 장마가 저서 강물이 불어 말과 소가 강물에 떠내려가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고 한다. 말은 내려오는 강물을 역류하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다 죽는다. 그러나 소는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떠내려다가 차츰 강가로 조금씩 다가가서 결국 강물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다.

우생마사(牛生馬死),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사자성어가 나온 배경이다. 소가 살아남는 이유는 순리(順理)를 따랐기 때문이다. 다가온 역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포기하지 않고 강가로 헤엄쳐 나오는 순리의 행동이 소를 살게 한 것이다.

인간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나 감당하기 힘든 역경이 닥치면 억지로 발버둥치지 말고 순리에 따르며 살 궁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 슬프면 울어야 하고, 어려우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조금씩 답을 찾아 살길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다. 안 되는 일 억지로 되게 하려다가 결국 무리하게 되고, 그 결과는 포기로 다가온다.

우생마사, 강물의 흐름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되 최대한 살길을 찾는 소와, 다가온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흐름에 역류하며 발버둥 치다가 죽는 말을 비유한 사자성어다.

매운(辛) 소(丑) 신축년에 새길을 신축(新築)하자!

신축년의 신(辛)은 천간(天干)으로 따지면 8번째, 방향은 서쪽, 색은 백(白)색이다. 그래서 올해 신축년을 하얀 소의 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행론으로 따진 것이다. 신(辛)은 라면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그 뜻은 맵다, 고생스럽다. 독하다는 뜻이다. 매운 신(辛)이라고 번역하면 신축년은 매운 소의 해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더 맵고 고생스러운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를 힘들게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환경은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원자력 산업도 이래저래 험난한 파도를 비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운 소의 정신으로 매서운 한파와 마주한다면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KIIF**

신축(辛丑)년 덕담(德談)  
石泉 박재희

올해는 매운(辛) 소다.  
맵고 독한 소걸음으로 새해를 신축할 때다.  
올해 소는 온순하지 않다.  
그 어느 해 소보다 독하고 매운 신축이다.

진흙에도 밀리지 않고  
폭우에도 잠기지 않고  
도끼에도 깨지지 않고  
바람에도 멈추지 않고,  
산다. 살아남는다.

포정(庖丁)은 소를 잡지 않았다.  
養生의 도를 소에게서 배웠다.  
순리의 결을 배우고  
멈춤의 힘을 배우고  
독심의 우직을 배우고  
희생의 나눔을 배우고

올해 소는 매운 소, 辛丑이다.  
더 독하게, 더 맵게, 더 세게.  
역풍과 마주하며  
새로운 나의 길을 신축할 혁명의 한 해.  
그런 귀한 새해. 신축이다.